

경제

성숙한 교섭문화, 기업 살렸다

■ 기아차 노사 '2009 임금협상 최종 타결' 의미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실리'를 선택했다. 기아자동차는 21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09 임금협상 안'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68.8%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고수 잘못된 관행 개선

노조 "명분보다 실리 챙기자" 68.8% 찬성

노조는 이날 하루동안 광주공장과 경기 소하리·화성공장 등에서 조합원 3만370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모두 2만 9천161명이 참여해 68.8%인 2만5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광주공장은 노조원 6천434명 가운데 6천217명이 참여해 찬성 4천306명(69.3%), 반대 1천911명(30.7%), 무효 5표로 다른 공장보다 찬성율이 높았다.

고, 고객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 지켰다=이번 협상 타결은 노사간 윈-윈 결과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킨 합리적 교섭문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졌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11차례, 올해 3차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한 손실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14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무노동 유임금'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끝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했다. '끝면 끝수록 유리하다'는 그동안의 노조 전술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여론의 압박도 가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입장을 선화해 한발씩 양보했다는 분석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순관처럼 거론됐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노조의 철회 요청도 거부했다.
회사측은 "과거 협상 때마다 반복

되던 노조의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 향후 합리적인 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래 내다본 노조 결단도 돋보여=노조 역시 회사 발전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노조는 경영위기 대응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본급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결단 뒤엔 실리가 뒤따랐다. 사상 최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주어졌다.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생계비 부족분으로 기본급 200%와 일시금 200만원, 특별 격려금으로 기본급 100%와 300만원을 챙겼다. 현대차와 호봉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신호봉표 적용과 주간연속 2교대(심야노동 폐지), 월급제 논의도 얻어냈다.
파업을 계속해봐 얻기 어려운 보상이다. 노조 집행부가 '인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밝힌 것이 그 반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이 21일 서울 신문로 본사에서 개최한 '경영위기 극복 노사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최현학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고경태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기옥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사장, 김성태 금호석유화학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금호 살리기' 노사 한마음

금호석유화학 위기 극복 결의대회... 성과급 반납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금호석와 노사교섭위원회와 여수고무공장, 울산고무공장, 울산수지공장 등 3개 공장 노조 대표들은 21일 종로구 신문로 본사에서 '경영위기 극복 노사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권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매년 받아온 경영성과급 100~200%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일반직 직원들은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결의했으며, 임원들은 지난해 10%에 이어 올해 20%의 임금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가 힘을 합쳐 혁신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원동력이 될 것을 다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3년간 무분류 임단협 타결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이고, 노사가 단결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다짐한다는 취지"라며 "경영위기 극복에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700억 펀다

임협 타결 현금지급만 259억... 지역경제 모처럼 활기 띠듯

기아차 노조가 21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09 임금협상안'을 가결,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성과급으로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있다.
임금협상안과 광주공장 직원 수를 계산해보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광주공장에 700억원대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비롯해 친척 지역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기아차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300%와 격려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성과급은 노사 합의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

로 22일 '성과급 300%와 3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격려금 140만원'은 설날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300%와 격려금 500만원'은 입사 15년차 생산직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천165만원' 정도다. 2차로 지급될 140만원을 제외하면 기아차 직원들은 22일 1천만 정도의 목돈을 쥐게 된다는 계산이다.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기아차 임직원은 광주공장 6천700여명, 영진·정비지 500여명 등 모두 7천200여명에 달한다. 개인 평균 1천만원만 산정하더라도 '720억원' 정도다. 월급 통장으로 지급되는 성

과급을 빼더라도 이날 현금으로만 259억원이 풀린다.
이 때문에 기아차 광주공장은 보안을 위해 현금 수송차를 동원하고 경호인원도 딸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협상 타결 소식에 공장 주변 상가들과 지역 유통업체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기아차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파업과 금호타이어 체불 때문에 연말 특수가 사라졌는데 이번 소식은 지역 유통업체에겐 추가 활인도 해주는만큼 기대가 크다"고 반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수출증가율 1위

10년간 연평균 33.5% ↑

전남도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33.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도 전국 평균 증가율 12.3%를 크게 웃도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지난 10년(2000~2009)간 전국 16개 지역별 수출증가율 및 수출 비중 변화' 분석 결과다.
전남은 무려 33.5%의 연 평균 증가율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증가율 최대 지역으로 뽑혔고, 대전(26.6%), 경남(25.3%), 울산(22.7%)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19.9% 증가율로 5위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북으로 이뤄진 호남광역경제권의 연 평균 수출증가율은 24.7%, 전국 7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수도권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지방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우건설 투자자, 금호에 2조 투자 제안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에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수혈해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FI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과 회의를 열어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천원에 넘기고 무담보채권자로 워크아웃에 참여하라는 산업은행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FI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2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금호산업에 투입해 지분 50.1%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그룹이 정상화하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FI들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대우건설, 대한항공까지 지배할 수 있다.
FI들은 외국계 은행 등으로부터 투자확약서(LOC) 등도 확보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FI들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룹 구조조정에 긍정적이어서 대우건설 주식 1만8천원에 매입해주는 방안은 철회기로

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FI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FI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및 금호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필뉴스

코스피지수 1,722.01 (+7.63)
코스닥지수 549.03 (+4.91)
금리 (국고채 3년) 4.26% (+0.02)
원·달러 환율 1,137.10원 (-1.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인동상일부동산
(FAX)233-1772 TEL 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TEL 011-609-5221
상가임대
총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8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 병원, 학원 사무실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멜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유아, 파스타, 편의점 등
2층: 패밀리에스토랑, 전문식당, 유아유아,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바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인성,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명 (분할가능)※
○대지매매○
수원동 롯데마트 옆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수원동 주원대모원(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수원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수원동 삼성전자 옆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면시설팀/대표 010-7578-7525
속삭시설팀/대표 010-8811-2817
공정/토지 마케팅팀 010-4848-2142
아파트/빌라 팀/대표 010-5879-0855
주책/개개별 분양팀 011-602-1895
근면주책 마케팅팀 010-6386-6443